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19. 6. 29. / (총 2매)			
보험정책과	과 장	정 윤 순	전 화	044-202-2710
	담 당 자	박 정 우		044-202-2705

**“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
재정당국과 협의 중,
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
보험료율도 적정 수준 인상 필요”**

(6월 29일자 한국경제, “이미 건보료 많이 올랐는데... 또 국민에 부담 전가”
 “내년 건보료 인상 불발... 벽에 부딪힌 ‘문재인케어’”
 중앙일보, “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무산... 문 케어 시행 2년만에 재정 조달 빨간불”
 아시아타임즈, “문재인케어에 건보 재정도 파탄... 내년 건보료율 결정 연기” 등 보도 관련)

□ **설명 내용**

-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.
-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입니다.
 -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(‘17~’22년 총 30.6조 원)은 있습니다.
-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향후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,
 -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, 보험료율을 적정하게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
-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,
 - 현재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,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지원 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-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등 추가 논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